중대본 "코로나 유행 4주째 증가…겨울철 재유행 본격화 양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62987?sid=102

"감염재생산지수 3주째 '1' 상회…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연내 구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11.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상회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병상 가동률도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본격적 재유행에 대비해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중증 병상가동률은 10월 2주 15.8%에서 10월 3주 18.1%, 10월 4주 23.5%, 11월 1주 25.7%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준중증 병상가동률도 10월 2주부터 11월 1주까지 23.1%→28.6%→33.3%→36.4%로 상승하는 중이다. 이 제2차장은 "현행 의료시스템 내에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국민 관심도와 연구 가치가 높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은 중증 예방효과가 입증된 만큼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 참여해 달라"며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주기 비란다"고 당부했다.   
  
  
  
다시 맞잡은 두 손(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두 손을 맞잡으며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10.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bkkim@yna.co.kr

정부, “코로나 7차 유행” 공식화…‘실내 마스크’ 최소 방역 유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4081?sid=102

사망·위중증 급증에 공식 선언하루 최대 5만∼20만명 예상국외 변이, 규모·정점 시기에 변수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피검자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7차 유행으로 공식 규정지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7차 유행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상황”이라며 “현재 (7차) 유행이 맞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지 않았다며 7차 유행 판단에 신중했던 정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 오미크론 세부 변이인 ‘BA.5’형이 우세종이 되자 6차 유행 기간으로 구분한 바 있다.정부가 7차 유행을 공식 선언한 건 최근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월 첫째 주(10월30일∼11월5일) 하루 평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94명으로 10월 넷째 주(238명)와 견줘 2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사망자 또한 22명에서 32명으로 한 주 사이 44.2% 늘었다. 병상가동률 또한 꾸준히 증가해 11월 첫째 주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25.7%,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6.4%까지 모두 올랐다. 아직 국내 발생률은 미미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국외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도 유행 규모와 정점 시기를 앞당길 변수다.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세부 변이 바이러스 BA.5의 국내 검출률은 9월 셋째 주 98.8%에서 11월 첫째 주 91.1%로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BQ.1.1와 BF.7은 0%에서 각각 1.4%, 1.0%로 증가추세다. 7차 유행 규모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5만∼20만명이란 폭넓은 예측을 내놨다. 지난 여름철 유행 수준(최대 18만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확진자가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설명이다. 최대 발생 규모인 20만명을 예측한 배경에 대해 이상원 단장은 “BQ.1.1이라든가 XBB와 같은 (신규) 변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좀 낮은 편에도 불구하고 12월 정도엔 우리나라에서도 우세화될 전망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대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20만명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유행 정점 시기와 관련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준수하고 2가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정점 이후) 한 2∼3개월 지나면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0시 기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대비 3.0%로 저조한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7차 유행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조치만 유지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겨울철 유행은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여름철 유행 대응과 같이 시간·인원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신규 변이가 출현하거나 치명률이 급증하는 국가에 한해 비자발급과 항공편 운항 제한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法 "전면금지 과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26661?sid=102

기사내용 요약김문수 등 14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지난 2020년 3~4월 집합금지 기간 예배 참석법원, 서울시에 일탈·남용한 위법 있다고 판단"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예방 가능"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지난 2020년 3월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9.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이소현 조성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기소 2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관계자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법정형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해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한 뒤 "종교적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은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김 부장판사는 "현장예배 당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대규모 감염이 없었던 상황이고 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은 없었다"며 "서울시가 곧바로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예배할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무원 법정 증언에 따르면 완화된 제한 방침을 고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예배 전면적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충분히 코로나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부장판사는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판결 해 유리한 판결 선고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기간을 4월6일~19일까지 연장했다.김 위원장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김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의 애국적인 설교를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는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인가. 그러면 다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당초 지난 9월21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2일로 연기했다가, 재차 이달 9일로 선고일정을 조정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9월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코로나 침입 막는 이 식물…국내 연구팀이 발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42755?sid=105

더덕 [사진 출처 = 연합뉴스]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성분이 발견됐다.9일 기초과학연구원(IBS) 생명과학연구클러스터 이창준 소장 연구팀은 더덕에 함유된 ‘란세마사이드 A’ 사포닌과 벌개미취에 함유된 ‘아스터사포닌 I’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경로인 세포막 융합을 막아 감염을 억제한다고 밝혔다.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외피막과 인체세포 세포막 사이의 ‘막 융합’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연구팀은 더덕 등에서 발견된 물질이 이 융합을 막아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것을 밝혀냈다.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뿐 아니라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이 억제됐다.란세마사이드 A와 아스터사포닌 I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물질인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한 구조에 한쪽으로 길게 당이 붙어 있다. 세포막이 이들의 중앙부를 세포막 안으로 받아들이고 길게 붙어 있는 당 부위가 세포막 밖으로 돌출되는데, 이 부위가 코로나바이러스와 인체세포의 막 융합을 가로막는다.연구팀은 앞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김승택 박사 연구팀과 함께 도라지 사포닌인 ‘플라티코딘 D’의 항코로나 활성을 규명하기도 했다.이 소장은 “더덕이나 벌개미취, 도라지를 섭취할 경우 상기도 상피세포가 이들이 갖고 있는 성분에 고농도로 노출된다. 무증상환자나 초기 환자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세포실험 단계의 연구 결과지만 동물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임상 시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태영 IBS 선임연구위원은 “막융합을 저해해 코로나바이러스 등 외피막 바이러스의 감염을 범용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향후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여수 찾은 관광객 1천만명 돌파…코로나 이후 3년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05150?sid=102

10월말까지 1033만 명 방문빅데이터 결과 20~30대 방문 대폭 증가  
  
  
  
전남 여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만에 천만 관광객을 돌파했다. 여수시 제공해양관광 도시 전남 여수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천만 관광객을 달성했다.9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점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0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2020년 872만 명, 2021년 977만 명을 기록한데 그쳤지만 3년 만 코로나 이전 수준인 1천만 관광객을 재달성한 것이다. 특히 관광 성수기인 7~8월 여름 휴가철에만 285만 명이 방문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3만 명 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9월과 10월 대표축제인 '거북선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여자만 갯벌노을체험' 등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인 '싸목싸목 낭도', 테마여행 10선 '캠핑대전'도 인기가 높았고, 여수섬섬길 개통에 따른 '섬마을 너울길' 조성, '더섬 힐링센터' 운영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도 여수관광의 만족도를 높였다. 여기에 여수시에서 운영한 '관광종합대책반',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조직'도 각종 불편사항 해소와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며 관광객 증가에 큰 몫을 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물가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으로 언제든 관광산업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친절서비스와 합리적인 숙박요금, 청결한 음식문화 조성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코로나 치료하라고 풀어줬더니 10개월째 잠적… 마약사범 실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53506?sid=102

경찰 현판. /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임시로 풀려나 10개월째 잠적 중인 마약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인천시 서구 한 모텔 객실 등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9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1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임시로 풀려났다.당시 인천구치소의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받은 법원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인 석방을 허가했으나 A씨의 행방은 10개월째인 최근까지 묘연한 상태다.법원은 A씨가 계속 검거되지 않자 공시송달 후 이날 피고인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린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교육청, 코로나19 대비 수능 별도 시험장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63665?sid=102

시험실 추가해 수용 인원 81명→256명으로 늘려  
  
  
  
울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 수능 응시 인원은 재학생과 졸업생 1만365명이다. 일반 시험장 26개, 별도 시험장 1개, 일반 병원 시험장 1개, 코로나19 병원 시험장 1개를 설치해 운영한다. 재택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는 울산공업고등학교가 지정됐다. 병원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입원 확진자는 거점 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 시험을 칠 수 있다. 올해는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 수험생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되면서 별도 시험장 응시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울산의 일주일 누적 확진 수험생은 24명이다. 시교육청은 수능 당일 확진 수험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별도 시험장 시험실을 9실에서 16실로 늘렸다. 수용 인원도 기존 81명에서 256명으로 늘어났다. 재택 확진자와 격리자는 자차를 이용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구급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능 2주 전인 지난 3일부터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운영하고, 확진자 중심으로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또 학원, 스터디 카페, 게임 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는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으며, 이 시기에 시험장 학교는 사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다. 일반 시험장은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수험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수험표, 신분증, 마스크, 개인 도시락 등을 준비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착용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모든 수험생과 감독관에게 방역 마스크를 5장씩 지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등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로 신고해야 별도 시험장 및 병원 시험장 배정 등 수능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yongtae@yna.co.kr

‘코로나19 재유행’ 12월에 정점…“확진자 격리·실내 마스크 유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71139?sid=102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르면 12월에 정점이 찾아오고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철 유행에선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되며 12월 또는 그 이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이번 겨울철 재유행 규모는 최대 18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올해 여름철 유행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대본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유행이 확산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며 7일 격리 의무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격리 의무 등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이후 상황 평가와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방대본은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본격적인 재유행에 대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체 인구 대비 겨울철 추가 접종률은 3%에 불과하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도 각각 9%와 6.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방대본은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먹는 치료제 20만 명분을 올해 12월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코로나19 7차 유행 본격화…9일 신규 확진자 6만 2,472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33609?sid=102

◇사진=연합뉴스야외마스크 해제 45일째인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명대를 기록하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 2,472명 늘어 누적 2,598만 1,655명이 됐다고 밝혔다.전날의 6만 2,273명보다 199명 늘어 이틀째 6만 명대를 이어갔다. 지난 9월 15일(7만 1,444명) 이후 55일 만에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5만 4,737명)보다는 7,735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4만 817명)보다는 2만 1,655명 많다.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14일(9만 3,949명) 이후 8주 만에 가장 큰 규모다.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6,887명→4만 3,449명→4만 903명→3만 6,675명→1만 8,671명→6만 2,273명→6만 2,472명으로, 일평균 4만 4,476명이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2명으로 전날(52명)보다 10명 줄었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6만 2,430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 8,524명, 서울 1만 2,481명, 인천 3,862명, 경북 3,128명, 경남 2,831명, 대구 2,704명, 부산 2,703명, 충남 2,553명, 강원 2,445명, 충북 2,291명, 대전 1,950명, 전북 1,866명, 광주 1,577명, 전남 1,538명, 울산 1,189명, 세종 465명, 제주 349명, 검역 16명이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36명으로 전날(360명)보다 24명 감소했다.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9명으로 직전일(30명)보다 29명 늘었다. 하루 사망자 수가 50명을 넘은 것은 지난 9월 25일(73명) 이후 45일 만이다.누적 사망자는 2만 9,479명, 치명률은 0.11%다.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취약 계층에 대한 백신접종, 치료제 처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상회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2월 하루 18만명 상회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73151?sid=105

방대본, 재유행 정점 예상…2가 백신 접종해야방역당국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음 달부터 정점에 이르러 하루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만2천명으로 증가해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만에 1 이상을 기록한 후 3주 연속 유지하고 있다. 이달 1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281명, 사망자는 225명으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신규 변이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우세화됐던 BA.5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면역회피 증가 경향이 확인된 BQ.1.1과 BF.7 등 오미크론 세부계통 신규 변이는 늘고 있다. 해당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발생은 1% 미만에서 최대 2.9%로 아직 높지는 않지만, 해외유입 검출률은 이보다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방대본은 앞선 요인들에 의거,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18만 명, 정점 주간 일평균 13만 명이었던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행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다음 달이나 이후 정점에 도달할 것 전망했다.  
  
  
  
사진=김양균 기자이처럼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 방역당국은 별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방대본에 따르면, 하루 PCR검사 건수는 최대 85만회가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RAT) 검사의료기관도 1만2천327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전담병상은 6천여 개가 보유돼 있으며, 정부는 1만 2천개의 일반격리 병상을 추가 준비 중이다. 먹는 치료제는 현재 200만4천명분이 확보돼 있다.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신규 2가 백신 3종에 대한 접종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도 각각 9.0%, 6.9% 등으로 낮다.백경란 질병청장은 “감염이나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과 60세 이상 고연령층, 요양병원·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거주·이용자, 중증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